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이버 위협 대응 긴급점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24일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연초 국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필어비스, MS와 기술협력·글로벌 마케팅 맞손

필어비스가 지난 19일 기술 협력 및 글로벌 공동 마케팅을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필어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및 플랫폼 애저(Azure)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ML), 인공지능(AI), 개인 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협업할 계획이다.

/필어비스



넷마블, 가상인간 걸그룹 '메이브' 정식 데뷔

넷마블은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첫 걸그룹 '메이브(MAVE)'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메이브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앨범 'PANDORA'S BOX(판도라스 박스)'를 발매하고 정식 데뷔한다.

/넷마블

티빙 오리지널 '괴이' 3D 옥외광고 '앤어워드' 디지털 콘텐츠 그랑프리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의 3D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옥외 광고가 '2022 앤어워드'에서 디지털 콘텐츠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기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디지털마케팅 시상식이다. 현장 전문가, 산업계 대표, 외부 전문위원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된다.

/채윤정 기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교육부 인사교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신양수 ◇과장급 전보 △성광관리운영과장 한상열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고용센터소장 조정숙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김문실

부음

▲윤병순씨 별세, 백창훈(하나증권 홍보팀장)씨 모친상 = 23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하남마루공원. 02-3010-2000
▲김양자 씨 별세, 강병중(넥센그룹 회장) 씨 부인상 = 22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51)305-4000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등록 이야기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사람들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실제로 창작자 중 일부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물론 저작권법에 따를 때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위와 같은 저작권의 등록을 마쳐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적 권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등록된 내용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저작자가 '갑'인데 '을'이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을'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제한은 있어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저작권 등록은 위와 같이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추정이므로 반증(反證, 반대증거)을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이 또한 사실의 추정에 해당하므로 앞의 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저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 수준)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단순히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김준 SK이노 부회장 “미래 세상 움직일 중추되길”

신입사원들과 90분간 소통

회사 생활, 고민 등 이야기 나눠

“지금과 전혀 다를 미래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의 중추가 되어달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진행한 대화시간에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신입사원 연수 과정 중 ‘신입사원과의 대화’ 세션에 등장해 90분간 SK이노베이션 계열 신입사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이 SK이노베이션의 그린(친환경) 미래사업을 이끌어갈 주역인 걸 상징하기 위해 신입사원 명칭을 ‘그린이’로 붙였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신입사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엔부브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8개 자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1987년 유공 시절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뎀 ‘김준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신입사원들은 김 부회장에게 회사생활부터 개인적인 고민, 회사 미래 전략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SK어스온 한 신입사원이 “업무하다보면 토론이 많을 텐데 선배들 앞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김 부회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며 자기주장을 펴는 게 중요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할 말 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다”고 답했다. 또 “신입사원들이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생각을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美·유럽 등서 상 휩쓸어

美 주간지서 7개 부문 이름 올려
글로벌 시장 ‘퍼스트 무버’ 등극

현대자동차그룹이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수상 소식을 전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내연기관과 달리 전동화 시장에서는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상을 휩쓸고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U.S. 뉴스 & 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3 최고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의 고객가치상(Best Cars for the Money Awards)’ 차종별 12개 부문에서 무려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의 고객가치상은 품질과 상품성뿐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 가격, 유지비까지 평가해 종합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주어지는 상이다.

U.S. 뉴스&월드리포트는 1948년 창간된 시사 주간지로 분야별 순위가 각종 매체에서 인용되는 등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대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하이브

리드 승용, 현지명 엘란트라) ▲싼타페(중형 SUV) ▲팔리세이드(대형 SUV) ▲코나(소형 SUV)가, 기아는 ▲K5(중형 승용) ▲리오(소형 승용) ▲스포티지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SUV)가 경쟁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각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기아 텔루라이드, 제네시스 GV70도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주관하는 ‘2023 베스트 10 트럭&SUV(이하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카앤드라이버는 1995년 창간 이래 미국은 물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동차 전문지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3개 브랜드가 모두 수상하는 동시에 자동차그룹 기준으로도 최다 차종이 선정돼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